

## 국 외 소 식



### “애완견 죽음은 항공사 책임” 소송 제기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남성이 애완견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며 아메리칸 항공을 상대로 3월 29일(현지시간) 소송을 제기했다.

CBS 뉴스에 따르면 재정 분석가인 테렌스 잉(29)은 소장에서 지난해 8월 2일 애완견인 2살짜리 잉글리시 불독 ‘윌리’와 함께 아메리칸 항공편으로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간 뒤 애완견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으며, 수의사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항공사 직원이 묵살하면서 윌리가 죽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잉의 변호사인 코리 에번스는 잉이 당시 샌프란시스코 국제 공항에 도착해 개를 찾으러 갔을 때 직원들이 동물 운반용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고 윌리는 아직 살아있긴 했지만 불러도 반응이 없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수의사를 불러달라는 잉의 부탁에 항공사측 직원은 5분 뒤 수의사가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잉은 이후 직원들이 수의사에게 전화도 하지 않았음을 알게 됐다.

또한 윌리가 항공사 직원들에 의해 잉이 출입할 수 없는 지역으로 보내지면서 잉은 5시간동안 애완견을 볼 수 없었고, 직접 동물 구급차를 공항으로 부른 후에야 애완견을 다시 볼 수 있었지만 이미 숨이 멎은 상태였다.

잉은 “내 생애에서 가장 정신적 충격이 컸던 날 가운데 하나였다”며 항공사측의 처사에 분노했다.

그는 특히 “많은 애완견 주인들은 항공 여행시 항공사가 개들을 얼마나 형편없이 다루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며 이번 소송이 항공사들의 동물 수송 관행을 바꿀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아메리칸 항공의 팀 스미스 대변인은 “우리는 그동안 연간 10만건 이상의 애완동물 수송을 안전하게 수행해왔다”고 밝히고 더 이상의 언급은 거부했다.

연합뉴스 / 2006년 3월 30일

### 발기부전 종마에게 비아그라 처방 명령

독일에서 최근 한 종마를 구입한 새 주인이 종마가 발기부전이라며 제값을 다 지불하지 않고 버티자 끝내 소송으로 번진 끝에 종마에게 비아그라를 먹이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독일 노이루핀 법원에 따르면 베테라는 새 주인은 구입한 종마가 고환이 하나밖에 없어 암컷과 교미를 못한다며 4천여 유로(약 500만원)인 종마가격의 10분의 1만 지불해 소송을 당했다.

노이루핀 법원 관계자는 수의사가 검사한 결과 종마는 고환을 갖고 있었으며 비아그라를 투여한 결과 제 기능을 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 법원은 새 주인에게 매매가격 전액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쿠키뉴스 / 2006년 3월 21일

## 죽음을 앞둔 애완동물 호스피스 서비스 등장

병들거나 늙어 죽어가는 애완동물들을 보살펴 주는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가 호주 멜번에 곧 첫선을 보여 주인들의 짐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애완동물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호주 최초의 단체를 세웠던 피오나 헤일란 씨가 수주 내에 시작할 ‘발치의 심장박동 반려동물 케어’(Heartbeat at my Feet Companion Animal Care) 서비스는 말기의 병든 동물들을 제 집의 편안한 환경에서 보살펴 주게 된다.

사별 가족의 슬픔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호주단체의 코스 조정관이기도 한 헤일란 씨는 3월 15일 만성질병을 앓고 있거나 황혼기에 있는 애완동물들에게는 말기의 고통을 덜어주는 호스피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우리는 어떻게 애완동물과 주인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추어 개별적으로 필요한 것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면서 “핵심은 동물을 보살펴 주려는 주인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일부 주인들은 상태가 좋지 않은 동물을 그냥 말없이 집에 놔두고 있지만 노화에 따른 대소변 실금 등의 증상들을 대처할 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그녀는 지적했다.

멜번의 동부 교외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이 호스피스 서비스는 한 시간의 산책 및 친구 방문서비스(25달러)에서부터 집중훈련 및 주간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에 앞서 헤일란 씨는 애완동물의 죽음을 슬퍼하는 주인들을 위로해 주는 무료 네트워크인 ‘반려동물 상실 지원그룹’을 성공적으로 출범시켰는데 이 지원그룹은 동물보호단체 RSPCA와 공동으로 매달 애도 모임을 갖고 있다. 현재 회원은 30명 정도.

노컷뉴스 / 2006년 3월 15일

## 쇠고기 육질 ‘마블링’ 원인유전자 발견

쇠고기를 단면으로 잘랐을 때 지방이 눈 내린 것처럼 육질에 박혀있는 ‘마블링’을 만드는 유전자가 일본 연구진에 의해 발견됐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4월 3일 보도했다.

교토대 연구진은 일본산 최고급 쇠고기인 흑모화종(黒毛和種)과 젓소 품종인 홀스타인을 상대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혈관의 성장 등에 관여하는 ‘EDGI’라는 유전자가 마블링의 형성과 관련된 사실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결과로 마블링이 좋은 육질을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2006년 4월 3일

## 환자맞춤형 장기 이식 첫 성공...美서 방광세포 체외배양

방광이 손상된 환자에게서 세포를 채취해 체외에서 배양한 뒤 다시 그 환자에게 이식하는 수술이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 이에 따라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하는 대신 자신의 장기를 체외에서 배양하는 방식이 큰 진전을 이루게 됐다.

미국 웨이크포레스트대 앤서니 애틸러 박사 연구진은 선천성 척추 기형으로 신경이 손상돼 방광이 딱딱하게 굳어져 소변이 새는 4~19세의 환자 7명에게서 방광세포를 채취해 체외에서 배양한 뒤 다시 이식하는 실험에 성공했다고 4월 3일 밝혔다. 이 결과는 영국의 주간 의학전문지 랜싯의 특별 온라인판을 통해 발표됐다.

환자 중 한 명인 케이틀린 맥나마라(16) 양은 “기저귀를 차지 않고 밖에 나가 마음껏 놀 수 있어 너무 좋다”고 만족스러워했다.

AP통신은 4월 4일 지금까지 피부와 뼈, 연골 같은 간단한 조직은 인공 배양이 가능했지만 방광처럼 복잡한 장기를 환자 자신의 세포로 체외 배양한 것은 세계에서 처음이라고 전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직 많다는 전문가들도 “엄청난, 정말 엄청난 진보”라고 평가했다.

동아일보 / 2006년 4월 5일

### 적당한 음주가 건강에 이롭다는 건 거짓말

“잠들기전 한잔의 포도주가 심장에 좋다는 생각은 이제 버려라.”

적당한 음주가 심장병 및 사망의 위험을 줄인다는 믿음은 잘못된 데이터에 근거한 것으로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보고서가 나왔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3월 30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같은 사실은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주립대(UCSF) 간호학과의 케이 M. 필모어 교수팀이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전세계 54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이들 보고서 가운데 7개는 전혀 술을 마시지 않거나 여러해동안 금주한 이들만을 대상으로 연구했는데, 이들 7개 보고서 모두 적당한 음주의 이점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

연구팀은 이미 15년전 나이들고 병들면서 술을 끊는 이들을 연구한 끝에 “질병과 음주간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말은 편견이다”고 지적한 A.G. 셰이퍼 박사의 주장에서 출발했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몇잔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건강을 해치지 않을 지는 몰라도 결코 건강을 이롭게 하지는 않으며 과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건강에 해롭다는 결론을 내렸다.

필모어 교수는 “연구 결과 가볍게 술을 마시는 것은 건강하다는 표시이지 건강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는 없음을 의미한다”면서 “가벼운 음주가 건강에 좋다는 가설이 그릇된 것임을 입증하지는 못했지만 이번 연구가 그런 논란의 장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주립대(UCSD)의 마이클 크리키 박사는 “어느 누구도 음주를 권해서는 안된다”며 “많은 이들이 과음의 핑계로 술이 건강에 좋다는 이유를 대지만 이는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 2006년 3월 31일



## 어려운 약 설명서 쉬운말로 바꾼다

‘경면/기면/면기’, ‘디스키네시아’, ‘수명/수명감’, ‘애역’ 의약품의 사용설명서 등에서 누구나 자주 볼 수 있는 용어로 줄음, 운동이상증, 눈부심, 딸꾹질을 나타내는 말들이다.

일본식 한자 등으로 돼 있어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의약품의 용기·포장 또는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는 전문용어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알기 쉬운 말로 확 바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전문용어를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일상용어로 바꿔 나가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의약품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보를 제공하고 어려운 용어 사용에 따른 국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최근 의약품 관련 전문용어 340여개를 통계청에서 질병·상해 및 사망원인에 관한 통계처리 때 사용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와 대한의사협회에서 펴낸 의학용어집을 토대로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바꿨다.

먼저 한자 또는 영문으로 된 의약 전문용어들 중에서 ‘미란’→‘짓무름’, ‘교상’→‘물린 상처’, ‘비문증’→‘날파리증’, ‘헤르니아’→‘탈장’, ‘쉬겔라증’→‘이질’로 표현했다. 또 ‘밀전하여’→‘뚜껑을 꼭 닫아’, ‘점증요법’→‘점차 양을 늘이는 방법’, ‘가역적’→‘회복 가능한’ 등 한자로 된 줄임말 표기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 표기했다.

식약청은 이를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등에게 배포해 의약품 용기·포장 및 사용설명서를 기재하거나 의약품 허가(신고) 신청 등을 할 때 이같이 쉬운 용어로 바꿔 작성토록 권고했다. 또 앞으로 의약품의 표시 기재사항이 현행 품목허가증(신고필증)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식약청이 권고한 범위 내의 용어를 쓸 경우 표시 기재 위반으로 단속하지 않기로 했다.

세계일보 / 2006년 3월 31일

## 브루셀라증 환자 매년 급증

축산농가를 중심으로 브루셀라증 환자가 해마다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월 19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들어 2월 25일까지 브루셀라증 감염자수는 13명으로 집계됐다.

브루셀라증은 2000년 사람과 동물이 함께 걸리는 제3군 전염병으로 지정된 후 2002년 10월 첫 환자가 확인됐다. 이후 브루셀라증 환자는 2003년 16명, 2004년 47명에 이어 2005년 158명으로 급증했다.

브루셀라증은 브루셀라에 감염된 동물(소)의 혈액이나 대소변, 태반 등에 있던 병원균이 상처난 피부나 절막을 통해 사람에게 전파된다. 또 멸균처리되지 않은 유제품을 섭취해도 감염될 수 있다.

감염되면 2~4주의 잠복기를 거쳐 두통, 발한, 전신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치료시기를 놓쳐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증상이 몇년 동안 재발한다. 감염자 중 2% 이하는 심내막에 염증이 생겨 사망할 수

도 있다.

브루셀라증 감염자는 주로 축산업 종사자들이다. 158명의 환자가 발생한 2005년의 경우 축산업자가 142명이었고, 의사 15명, 기타 1명 등이었다.

브루셀라증 환자가 이처럼 매년 늘고 있는 것은 브루셀라에 감염된 소들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병원체에 감염된 소는 2003년 552마리에서 2004년 4천76마리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브루셀라증은 초기 증상이 감기와 비슷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다”며 “이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감염된 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살균되지 않은 우유 등 유제품을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 2006년 3월 19일

### “당신 애완견 데리고 있다” 속여 돈 요구

서울 남부지법 형사8단독 진상법 판사는 3월 14일 잃어버린 애완견을 데리고 있다고 속여 개주인에게 돈을 받아채기고, 개를 죽이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정모(44) 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애완견을 보호하고 있지 않아 개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사례금을 가로채고 이후 피해자를 협박해 추가로 사례금을 요구한 혐의 내용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02년 12월 17일 김모씨가 서울 송파구 풍납동 주택가에 붙여놓은 전단지를 보고 연락해 사례금 명목으로 15만원을 받은 뒤,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한 김씨에게 “개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2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화일보 / 2006년 3월 14일

### 젖소 사육 줄고 우유 생산 늘어

전국 젖소 농가가 10년새 2만여가구에서 9,000가구로 줄고, 젖소 사육두수도 7만마리 이상 감소했지만 우유 생산량은 오히려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낙농가구는 8,923가구로 10년전인 1995년(2만3천5백19가구)의 37.9% 수준으로 감소했다. 젖소 사육두수도 1995년 55만3천4백67마리에서 지난해 12월말 47만8천8백65마리로 13.5% 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 국내 낙농가가 공급한 원유(가공이전의 우유)량은 하루평균 6,106t으로 10년전보다 11.5% 증가했다.

경향신문 / 2006년 4월 4일

### “수입쇠고기 꼼짝마!”…한우·수입쇠고기 정확히 판별하는 기술 개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임박한 가운데 한우와 수입쇠고기를 100% 가깝게 판별해낼 수 있는 기술이 개

받았다.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는 3월 28일 한우와 수입 쇠고기의 판별이 가능한 유전자 마커(marker) 기술을 개발해 특허출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로 한우 1736두와 수입쇠고기 1316점의 시료를 수집, 분석한 결과 99% 이상 정확한 판별 성공률을 보였다고 연구소는 덧붙였다.

우리나라 한우가 대부분 인공수정으로 송아지를 생산하고 있는 점에 착안, 한우시험장 암소 218두 등 총 1083두에 대해 MS 마커 20개로 유전자 지문을 분석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한우와 수입 쇠고기에 대한 정확한 판별이 가능해졌다는 것. 연구소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경우 추가로 2000점 이상의 시료를 확보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적용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한우와 수입쇠고기 판별기술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시행시에도 필요한 기술로서 한우생산 농가는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축산연구소 오성중 과장은 “유전자 판별기술이 아직 복잡하고 초보자가 활용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쿠키뉴스 / 2006년 3월 28일

### 수혈로 에이즈 감염 정부 보상 추진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은 수혈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4월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혈받은 혈액으로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에게 혈액원 등의 과실여부를 떠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무상치료와 함께 취업기회를 제공토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나 현재의 의학기술로는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사전 탐지가 쉽지 않다”며 “따라서 감염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도 혈액 관리자나 수술병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

국민일보 / 2006년 4월 2일

